

사랑하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쓰다잇 여응 ^{អង្គការ} 우리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지난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주일을 크신 은혜와 기쁨가운데 드렸습니다. 여러날을 장식하고, 서로 섬김의 손길을 모아 음식을 준비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하고, 당일 기쁜 찬송과 어린이들의 특순, 스킷드라마, 크리스마스 메시지, 선물 추첨, 포토 타임, VIP 초청과 식사 등 많은 이들의 자원하는 손길들이 모여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포함한 이곳의 소식을 동역자님께 기쁨으로 나눠드립니다.

캄보디아 현대판 크리스마스 스토리

올 해 크리스마스 예배의 스킷드라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 사랑하고 정혼하였지만, 마리아로 인한 요셉의 근심과 천사의 고지,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연극을 하는 내내 웃음과 탄성이 계속 나왔습니다. 대사 표현, 몸짓, 배경

화면과 음악까지, 가장 전통적인 캄보디아 음악에서부터, 최신 애니메이션 장면, 그리고 간혹 등장하는 드라마 OST 까지 모든 장면 장면을 모든 이의 눈과 귀를 낚아채는 듯하였습니다. 저희도 대본을 넘긴 후, 연습과정을 전혀 참여하지 않았었기에 당일 처음 드라마를 봤었는데, 특별히 음악과 사진 등의 수십개의 파일을 연결하여 슬라이드를 만들었던 헝 ^{Heng} 형제의 탁월한 제작에 감탄하였습니다.



24 시간 롤러코스터

이번 스킷드라마에서 요셉 역을 맡았던 뷏쩃 ^{Vichet} 형제에게 22일 토요일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뷏쩃은 결혼한지 6개월 된 신혼 부부인데, 그의 아내인 쓰러이닛 ^{SreyNich} 자매가 마리아를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자매가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조카 생일에 관련되어 그 시부모님과 갈등이 발단이 된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까지 직장에서 일하는 뷏쩃형제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스킷드라마 전체를 망치게 될 처지에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니, 집에 들어가기까지 자매에게 다른 말 하지 말고 우선 기도만 하라 했습니다. 권면은 했지만 정작 저희 마음도 답답하였습니다. 급히 대역을 찾아야하나, 아니면 나레이션으로 대체해야하나 등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상황을 리더들에게 알리고 생각을 끊고 기도했습니다.

3 시간쯤 지났습니다. 다시 뷔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쓰러이넷이 아무일 없던 것처럼 돌아왔으며, 그뿐 아니라 크리스마스날 성도들과 나누겠다고 캄보디아 디저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23 일 주일 크리스마스 예배를 특별한 기쁨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저희는 쓰러이넷이 만들어 온 것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때 뷔찌의 어깨를 두드리며 24 시간 롤러코스터 탄 거 같지 않냐하며 웃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디저트가 참 달았습니다. 뷔찌와 쓰러이넷 부부는 20 대 후반의 신혼부부로 이후 저희 교회에서 귀한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지체들이라 믿습니다.



(오른쪽) 마리아역의 쓰러이넷



마리아의 임신을 소식에 괴로워하는 요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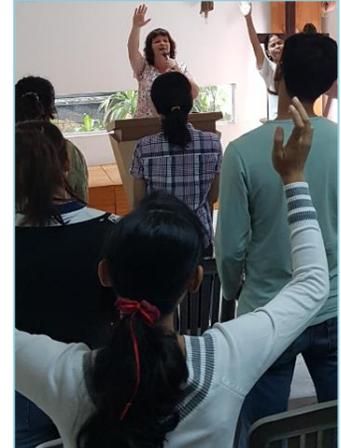


쓰러이넷이 가져온 디저트(흰색)

나의 소중한 사람 'VIP chair, VIP club'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지난 두달간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브이아이피 의자 ^{VIP chair} 였습니다. '1 년에 한 사람' 전도의 모토에 따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을 쓰고, 그들의 이름이 써있는 빈 의자를 만들어, 그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은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을, 그리고 결혼한 자매들은 대부분 남편의 이름을 썼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안고 남편의 이름이 써 있는 의자에 앉아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젊은 엄마들을 볼 때, 저희의 마음도 아프고 간절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름만

있던 빈 의자들이 크리스마스날 많이 채워졌습니다. 개개인의 VIP 요, 교회의 VIP 였습니다. 그 가운데 씨로앗 자매는 4 명의 VIP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들이 모두 채워졌다고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찬양과 연극, 말씀 모든 것이 복음의 메시지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반복 집중적으로 들었던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배 이후 씨로앗이 자기만의 VIP club 을 만들었습니다. 영혼을 품는 일은 참으로 수고스러운 것인데, 그들이 얻는 기쁨은 그 수고보다 크다는 것을 씨로앗을 통해 또 보게 됩니다.



오른쪽 두 사진은 짬투^{Chanthou} 자매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그 가정의 며느리로 살아가는 어려움이 큼니다. 매주 어린 아이를 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 지난 11 월 예배시간 중 자신의 삶을 눈물로 간증하였습니다. 이 자매의 VIP 의자는 이번에 끝내 비어있었지만, 그 기도와 눈물을 분명 주께서 담으시고 큰 기쁨으로 찌우실 것입니다. (손을 들어 예배하는 모습)

새로운 지평을 갈망하는

매년 크리스마스 예배에서 저희는 다음해의 교회 비전을 발표하고 티셔츠를 제작해서 판매합니다.



2019 년 교회의 비전은 '새로운 지평을 갈망하는' ASPIRING THE NEW HORIZONS 입니다. 모니레악 형제가

디자인을 그리고, 태국 방콕의 옷가게로 파일을 보내 티셔츠를 만들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버스에 짐으로 실어 들어왔습니다. 검정, 분홍, 카키그린의 세 가지 색상과, 각각의 4 가지 사이즈로 큰 박스를 가득 채워 들어왔는데, 사이즈가 안 맞는 몇 벌을 제하고 다 나갔습니다. 가격도 원가^{\$4.4}, 할인가^{\$2.5}, 복수 할인가^{\$2 두벌 이상}, 그리고 후원가^{\$10} 의 네가지로 판매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겠다면 열 두벌을 산 자매도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6일 신년비전 설교를 통해 이들은 이 비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과 삶의 지평을 갈망하고 그리 이끄실 것입니다.



2018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를 돌아보면 무엇보다 예배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심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예배당도 처음 5년간 저희집에서 드렸던 이후, 지난 2016년 5월 현재의 NGO 건물의 방을 빌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지난 11월부터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겨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매 주일 예배시간에 기도하는 한 가지 동일한 간구,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입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사모했던 찬양팀이 세워지고, 예배에 기도의 비중이 배로 늘었으며, 치열한 삶 속에서의 간증자들이 세워지고, 흥미한 생각이 또렷해지고, 나에게 향한 관심의 비중이 점점 서로와 교회 밖으로 돌려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시작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히 순종해야 합니다.

수요 기도회 Wednesday Prayer Meeting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수요 기도회는 적은 수가 모이나 정착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14년째 중보기도사역을 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리 선교사가 인도하고 정지웅 선교사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함께 중보기도의 말씀들을 배우며 기도하는 훈련해가며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2월 26일 마리 선교사님을 만나 한해를 감사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기도모임을 시작 할 수 있도록, 늘 그 시간 그 자리에 오고 신실히 섬겨준 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리 선교사님은 오히려 저희에게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십년이 넘도록 중보기도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역을 해왔지만, 지역교회의 상황 안에 들어와 동일한 성도들의



기도회를 섬기는데 쓰임받는 것이 자신에게도 새로운 도전이고 사역의 확장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리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며, 언젠든 프놈펜에서 세미나나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면 저희 교회를 센터로 삼아 사역을 펼쳐나가시길 바란다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가 그분의 나라를 위해 허브 HUB가 되고 싶다고요.

제자훈련 2 단계 시작

오늘의 양식 *Our Daily Bread* 캄보디아 지부에서 일하는 분타 *Buntha* 선생님입니다.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미국 버지니아에서 온 선교사를 도와 10 여년간 캄보디아 여러 지방 도시에서 미니바이블스쿨 1년과정 신구약 개관 사역의 통역자로 성경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 선교사님은 돌아가고 분타 선생님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으며, 자신의 삶의 가치는 주님께 쓰임받는 만큼이라 여기고, 일을 하며 수입을 얻는 것도 주의 사역을 하라는 것이라고 백하는 귀한 30대 중반의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정지웅 선교사하고는 1년전쯤 신학교에서 만나 교제가 시작되었는데, 이런 분이 저희교회에 와서 제자훈련 사역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교회의 비전과 저희 부부의 살아 온 간증등을 나누며 교제한 후,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의 동참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하였습니다. 그렇게하여 지난 8월부터 저희 교회 예배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이후 교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였으며, 10월부터 성경교사로 제자훈련 반을 개설해 주일 아침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리 선교사님과 같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이 자원하여 우리 교회를 동역하게 이끄셨을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달리 생각되지 않습니다. 분타 선생님도 기존의 세미나에서 못 누렸던 영혼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며 제자삼는 기쁨을 더불어 누리고, 나아가 저희 교회를 거점으로 그의 사역을 캄보디아 전역으로 견고히 펼쳐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일독 (3-2-1) Bible Winner

2018년 교회의 비전을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로 정한 후, 교회는 전 성도 성경읽기를 중점 사역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매달 1일 성경 본문을 알리고 마지막 주에 Bible Winner (성경승자) 상을 주며 열 두 달을 마쳤습니다. 성경일독은 3 가지 선택이 주어집니다. 1년동안 ‘신약 1독, 구약 1독, 신구약 1독’, 그리고 ‘1년동안 구약 반독’입니다. 선택에 따라 성경 전체를 1년, 2년, 혹은 3년에 걸쳐 일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한 저희에게는 성경 한권을 3년동안 읽는다는 것이 너무 느리다 싶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결단없이 10년이 지나도 일독하지 못합니다. 태어나서부터 평생 불교와 토속 종교 문화 속에서 살아온 캄보디아 사람이 그 눈을 들어 성경말씀을 읽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의미이며, 결단코 쉬운 일도 가벼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날을 정해 모여서 단기간 통독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각자의 삶터인, 집과 직장에서 성경을 읽도록 권면했습니다. 매일 스스로 성경을 읽는 습관을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올 해 한 명의 신구약 일독자, 10 명의 신약 일독자, 그외 많은 이들이 성경을 1년동안 각자의 삶 터, 집과 직장에서 매일 읽었습니다.



다엔이 자기와 집이 가까운 릴리 자매와 함께 저녁시간 집에서 만나 누가복음을 한절 한절 같이 읽는 모습입니다. 페이스북으로 보내온 이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영혼이 그분에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새 친구 New Comers

올 해를 돌아보면 많은 감사가 있지만 그중에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주시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또다른 이들을 만나 생명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던 중 올 해 새로운 이들이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되었는지 정착한 이들을 중심으로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엔 자매를 통해 교회로 오고 정착한 이들, 그들을 통해 또다른



이들이 정착하게 된 것을 보며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선교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자매가 1년동안 이같이 귀한 하나님의 쓰임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친구들이 오면 복음을 전하고, 셀과 제자훈련에 속하게 하며, 관심 사역에도 지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세달에 한번씩 예배시간에 인도한 지체를 통해 장미꽃 한 송이를 전하고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소그룹 리더와 헬퍼 Cell leaders & Helpers

새로운 이들이 더해지며 소그룹^{Cell}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4 개의 셀에서 당장 두 개 정도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기는 것은 급하다고 아무에게나 할 수 없기에 기도하며 헝^{Heng} 형제와 쏘반니^{Sovanny} 자매를 예비리더인 헬퍼^{Helper}로 기존 셀 안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현재 모두 6 개의 셀이 3 개의 큰 그룹으로 모여있는 형태이고, 2019 년 중에 증식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바라는 것은 저희가 캄보디아 현지교회고 재정 규모가 작지만, 그래서 늘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2011 년부터의 캄보디아 국내선교, 2016 년부터의 해외 단기선교입니다. 그리고 적은 액수지만 2018 년 한해동안 깜봉짬의 고아원 한 아이를 후원했었습니다. 지난 수목 올 해의 마지막 리더모임 자리에서 내년의 비전을 나누며 한가지 새로이 선포했습니다. 2019 년에는 적은 액수로 시작하더라도 한 두명의 캄보디아 사역자를 재정후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못하는 귀한 사역을 하는 분을 찾아, 셀과 연계하고 기도와 재정을 모아 협력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 일이 2019 년

시작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쏘반니 자매는 프놈펜 소재의 UN 사무소 직원입니다. 이 자매가 리더로 성장하며 영혼을 돌보는 이야기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흔들리나 붙들린 뼈이^{Pey: shaky in Him}

뼈이^{Pey} 자매는 두 달전에 새로 온 자매입니다.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가 다옌의 인도로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밝고 시원하며 운동을 좋아하는 활기찬 성격이면서 동시에 어딘지 불안정하고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다른 멤버들과도 잘 어울리며 정착한다 싶던 차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그냥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예배에 오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들은 저희 마음을 아프게했습니다.

그렇게 한주가 지나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옆의 사진은 그날 설교를 노트하는 뼈이 자매의 모습입니다. 이 한장의 사진이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흔들리나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안전하구나 싶었고, 방황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으나 잠깐이요, 붙드시는 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또한 연약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 여겼습니다. 이날 저녁 뼈이 자매에게 사진을 보내고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어서’.



한 영혼, 여럿의 시작 One, a beginning of Many

저희가 가르치는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NPIC)는 매년 11 월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4 개의 수업 100 여명을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선생이 되기를 매년 노력합니다.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이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 그 불러주는 이에게 마음을 더 열게 됩니다.



한 영혼에 다다르는 것 ^{Reaching '1 soul's} 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차라리 열심히 일을 해서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 9 월부터 불신자 다섯 명을 타겟으로 잡고 주말에 집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NPIC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한 두주 참석하더니 고향에 돌아가는 자, 직장을 잡아 일하는 자, 집안일을 도와야하는 자, 정말 성경의 예화와 같이 하나 둘 생활에 얽매여 돌아오지 않았습니니다. 그렇게 이제 두 명 남았습니니다. 씨차이 ^{Sichhai} 자매와 찌어 ^{Chea} 형제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한명을 가르치나 열 명을 가르치나 저희가 쓰는 에너지는 차이가 없기에, 차라리 아무도 오지 않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금 저희가 처음 이 땅을 밟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삼을 한 명을 만나게 해 달라고 6 개월간 기도했던 것, 그리고 이후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여 지금 저희의 동역자 되어 서있는지를 생각하면,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그런 이들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씨차이 자매가 꾸준히 저희집으로 옵니다. 믿음도 없고, 집도 먼 자매입니다. 앞으로 1-2 월 풍성한 삶 ^{Abundant Life} 교재로 공부하는데 이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길 기도해주세요. 한 사람이 여럿의 시작입니다.

또한가지 지난 25 일 크리스마스 행사가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저희와 같이 자비량으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한국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 점심시간을 이용해 기숙사 로비에서 예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찬양, 연주, 말씀, 선물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교국가인 캄보디아는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며, 국립대학인 NPIC 에서의 전도는 철저히 금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 점심시간은 일종의 은혜의 유예시간입니다. 이날 200 여명의 학생이 모였고 정지웅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자는 어눌하나, 듣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기도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이들

처음 20대 초반 풋풋한 모습으로 만났던 제자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더니, 이제 결혼을 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이번 12월과 내년 2월까지 세 명의 교회 멤버들이 결혼을 합니다. 지난 20일 감봉잠 지방으로 삐사이^{Pisey} 형제의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4명의 다른 이들을 차에 태워 오가며 또한 많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신부 말리카 자매가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삐사이의 말을 따라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지만.. 그래서, 이 둘에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함께 원하는 때에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요. 곧 1월 2월이면 피롬/삐사이, 차이/소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두 커플은 모두 저희 교회에서 만난 교회커플^{Church Couple}입니다. 두 커플 모두 형제들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한 지체가 삶의 여러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나가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으로 커다란 축복이라 고백합니다. 동시에 지난 동역서신 25, 26에서 나뉘드렸던 또 한명의 지체, Peter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담아 베드로라 이름 지어졌던 이, 2016년 저희들의 태국선교에서 진가를 발휘했던 일꾼, 그러나 이후 결혼을 생각하는 자매 집안의 종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금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오늘 다시 그 형제에게 연락을 취해봅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

선교사 가족 이야기

요즘 저희 집에 물이 잘 안나옵니다. 인근에 새로이 주택단지를 지으면서 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프놈펜 시에서 공지된 것은 하루 단수였지만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평소 몇시간씩 정전이 되곤 했지만, 물이 끊긴 적은 없었기에 많이 불편합니다. 물이 나오는 때마다 욕조와 바케스에 물을 받아 퍼서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더운 나라에서 여러가지 불편할텐데 별 짜증없이 지내주니 또한 고마운 마음입니다.



온유 주언이는 8학년과 7학년 1 학기를 마치고 지금 방학입니다. 학원에 다니는 것도 없으니 집에서 평평 놀고 있습니다. 뭔가를 시키고 보충해야하지 않는가 싶지만, 아이들이 선교지에서의 기억을 행복하게 가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25 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서로에게 돌아가며 카드를 썼습니다. 그냥 고맙다는 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짧아도 구체적인 표현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글에서 저희 부부 모두 적잖은 격려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들과 지금같이 매일 같이 지내는 시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에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온유와 주언이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언제나 다 표현하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이 저희 안에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 부부가 지금 이곳에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은혜와 부르심에 합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 서신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동일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선교사로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도록
2.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며, 은사에 따라 찬양,기도,주일학교팀들 활발히 일어서도록
3. 온유와 주언이가 어릴적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 중요성과 기쁨을 알아가도록
4. 2019년 한 해동안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며 필요와 능력을 채워주시길

2018년 12월 28일

정지용/은영, 온유, 주언 선교사 가정 올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